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걱정 레츠펫 ‘필루’ 하나면 OK



봄이 되면 반려동물을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진드기와 모기다. 반려동물이 산책 중에 진드기와 모기에 물리면 심장사상충이 생기기 쉽다. 심장사상충은 심장에 침범해 발병하니 반려동물이 갑자기 죽는 일도 생긴다.

반려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다행히 반려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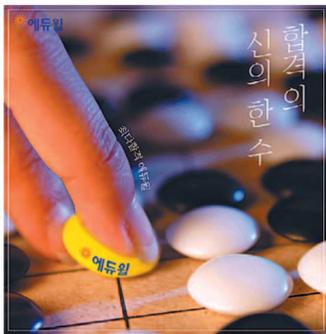
레츠펫의 ‘필루’가 대표적이다. 레츠펫은 해충방지용품으로 필루 목걸이와 스프레이 연고, 스프레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필루 제품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 해충방지용품 중 손에 꼽힐 정도다.

심장사상충은 날이 따뜻해지는 4월부터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심장사상충방지용품이 날개 풀린 듯 팔려나간다.

서문호 레츠펫 대표는 “3월 즈음부터 필루 제품이 잘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레츠펫의 필루는 소셜 커머스인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에도 납품된다. 특히 쿠팡 원년부터 쿠팡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성장해왔다.

레츠펫은 B2C(기업-소비자간 거래)가 아닌 B2B(기업간 거래)만 하고 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자들에게 보내면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비법... ‘탄탄한 이론 중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던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막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초시생들은 어떤 과목을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지, 남은 시험일까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고, 학습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등 각종 고민에 휩싸이곤 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겪어본 선배들의 이야기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정답이 되어줄 순 없겠지만, 같은 고충을 겪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 시간을 낭비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에 2018년도에 이어 지난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최고 득점자를 배출한 에듀윌은 수많은 주택관리사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공개하고 있다. 1600건이 넘는 합격수기와 시험후기는 수험생들의 고민 해결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며,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장 연임’ 최영민 회장의 성과와 과제

“‘동물은 가족이다’ 인식 개선 더 필요해요”

2년째 해운 동물등록제 탄력받을 것  
자가 진료 철폐·의료배상 실비 의미  
수의사 권익·반려인 권리 보호 노력

2월 2일 서울시수의사회는 최영민 회장을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최영민 회장은 서울시수의사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최 회장은 수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반려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연임을 축하한다. 연임하시게 된 소감은.  
“원래 맡고 있던 업무가 있는데 이어서 하라는 회원들의 뜻인 것 같다. 서울시와 진행하는 동물등록제를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2년 차다. 대국민 공익광고도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4년 지속해야 한다. 잘 이끌어 가야하니 어깨가 무겁다.”

- 수의사들이 ‘나를 지켜주는 수의사회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평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꼽는다면.  
“반려동물 자가 진료를 철폐했다. 철폐 안 했으면 전 국민이 주사기 들고 다닐 뻔 했다. 또한 국회에서 동물복지표준협회도 만들었다. 수의권도 지키지만 동물권 보호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다.  
“의료배상 실손보험도 도입했다. 의료사고가 나면 단체 보험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만약 재판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선임비용도 내준다. 병원에

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보상해준다. 한 동물병원에서 배관이 터져 아래층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보험처리 해줬다.”

-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수의 컨퍼런스가 있다.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라 수의사가 2200명 정도 모인다. 조만간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제 컨퍼런스로 만들 예정이다. 사실 수의사 이미지가 다소 좋지 않다. 진료비가 비싸다는 평이 많다. 미국 수의사도 같은 걸 겪었는데 그들은 HAB(Human Animal Bond)라고 해서 ‘동물은 가족이다’ 캠페인으로 인식 개선에 성공했다. 동물이 가족이면 진료비가 아깝지 않으니깐. 우리도 같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

- 수의학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사람 빼고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진료할 수 있다. 달팽이 껍데기도 붙여주고, 싸우다가 눈을 잃은 악어의 의안도 만들어줬다. 돈 벌면서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직업이다. 괴태가 3대 직업으로 의사, 변호사, 소설가를 꼽았는데 수의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웃음).”

- 반려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 주민과 갈등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 수의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웬만한 개의 시속이 40km다. 최고의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가 시속 38km니까 보통 개가 인간보다 빠르다. 정상적인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줄을 풀고 다녀야 반려견이 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자유로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김호승 객원기자 newsman@nate.com



2월 2일 제25대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영민 회장. 최 회장은 동물등록제, 대국민 공익광고, 의료배상 실손보험 도입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사진제공 | 펫뉴스

건국대 센터 “반려동물 법률상담 하세요”

충주에 ICC 설치·반려동물 산업 선도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 하면서 대학들도 반려동물 연계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대학은 건국대학교다. 건국대는 LINC+ 사업단(단장 노영희)을 통해 산학 및 지역협력 사업으로 반려동물 분야에 적극 임하고 있다. 충주 글로벌 캠퍼스에 힐링바이오공공대학(반려동물 융합전공), 반려동물 ICC(Industry coupled Cooperation Center),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등을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는

국내 최초 시도로 반려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진홍 법률상담센터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보호 및 복지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법적 전문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상담센터를 설립했다”면서 “법률상담센터의 상담은 크게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것과 반려동물로 인해 일어난 사례, 예를 들면 개물림 사고나 중간소음 등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신선한 취지로 마련된 법률상담센터에 반려인들의 상담도 쇄도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2019년 6월에 개소해 8개월 정도 지났다. 실제 상담이 들어온 건 100건 정도



2019년 6월 문을 연 건국대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개소식. 사진제공 | 펫뉴스

고, 그 중 80%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센터는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다.

건국대는 앞으로 반려동물 분야의 ▲축산·식품 ▲뷰티·패션 ▲인프라 ▲법률·교

육 ▲제품 등 각 분야의 지원과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학·연 공유·협력 모델을 구축해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호승 객원기자 newsman@nate.com

교육·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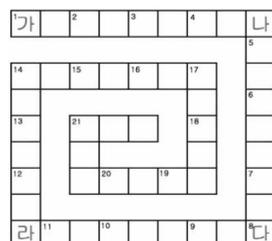
에듀윌

초시생들을 위한 합격생 수기 공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낱말문제



01.자기를 낳아 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02.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03.낙량이 있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북. ‘오명오’ 04.고립되어 구원 받을 데가 없음. 05.현생 인류 이전의 고대 인류. 06.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 07.사사로운 이

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08.늙은이가 되어 지내는 시기. 09.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 10.백제의 제31대 마지막 왕. 11.꿈임없이 가고 옴. ‘오래오절’ 12.퐁퐁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13.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줌. 14.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15.땅속의 토사·암석 따위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 16.사냥하여 잡을 수 있도록 허가된 새. 17.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를 왜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오선오’ 18.비용을 가지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여행. 19.좋은 운수를 만나 일이 뜻대로

잘되어 가는 사람. 20.자기 눈에는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듯 쉽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21.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쓴 다음 가나다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